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7월 12일(일) 제1597호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한국과 일본 목회자, 청년 450여 명 참석

리브소나타본부가 주관한 ‘2026 한일 청년연합집회 The Way(이하 2026 The Way)’가 막을 내렸다. 지난 7월 3일(금)~4일(토)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그가 네 길을 곧게 하시리라)’(잠 3:6)를 주제로 일본 인자이시 문화홀과 TCU(도쿄기독교대학)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국과 일본 목회자 및 관계자, 청년 450여 명이 참석했다<관련 지면 4면>.

7월 3일(금) 인자이시 문화홀에서 열린 ‘2026 The Way’ 집회에서는 토미야스 스미토(CCM 싱어송라이터), 해금 연주자 조형주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감추인 보물’(마 13:44~46) 설교, 헌신자 초청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4일(토) TCU(도쿄기독교대학)에서 이어진 ‘YUM E 콘퍼런스’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야마구치 요이치 목사(TCU 특별교수) ‘한일 기독교 역사의 과거와 미래’ 전체강의, 선택식 강의, 한일연합기도회 등을 했다.

시미즈 미키 자매(야마토갈보리교회)는 “The Way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차세대 여름사역 본격 시작!

차세대사역본부가 여름사역을 본격 시작했다. 7월과 8월 여름 캠프와 아웃리치가 이어진다.

여름 캠프는 연령별로 진행한다. 예수님의꿈아이와 꿈이지라는땅은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주제로 8월 9일(수)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과 외부에서 여름캠프를 한다.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는 ‘돌파’를 주제로 7월 17일(금)부터 8월 4일(화)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서해안청소년수련원, 도교교원연수원, 양평숲속작은나라 등지에서 한다.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는 8월 30일(일)까지 국내외에서 팀별로 진행된다. 국내 팀은 전라남도 담양, 경기도 부천, 충청남도 보은 등지에서 노방전도, 성경학교, 어르신 섬김 등을 한다. 해외팀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몽골 등지에서 어린이 캠프, 노방전도, 환경 미화 등을 한다.

한편,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카페’에서 7월 한 달 동안 대학청년부 및 차세대 여름사역 중보기도문이 담긴 컵홀더를 사용한다. 컵홀더에 인쇄된 QR코드로 접속해서 중보기도문을 확인하고, 기도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714연합기도대성회’ 7월 17~18일 잠실학생체육관
한국 교회 연합기도 운동, 500여 교회 성도 2만여 명 참석 예정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사 62:6).

500여 한국 교회 2만여 성도가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품고 한국 교회 연합기도 운동을 한다. ‘714연합기도대성회’(이하 714 기도회)가 7월 17일(금)과 18일(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사 62:6)를 주제로 막 오른다.

올해 714기도회에서는 이를 동안 5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째 날(17일)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세션 1’이 진행된다. 이기용 목사(신길교회)가 설교하고,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이해영 목사(성민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신길교회 찬양팀이 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세션 2’가 이어진다.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가 설교하고, 김도훈 목사(신림동산교회), 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더사랑의교회 찬양팀이 찬양한다.

둘째 날(18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세션 3’이 진행된다.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가 설교하고, 이요한 목사(수원순복음교회), 류성룡 목사(홀어진화평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아이자야61이 한다. 오후 3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이어지는 ‘세션 4’에서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 남경우 목사(GMTC)가 기도회를 인도

한다. 찬양은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한다. 마지막 ‘세션 5’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어진다.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설교하고, 기도회는 이종필 목사(세상의빛교회),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가 인도한다. 찬양은 아이자야61이 한다. 714 기도회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홈페이지(714praymov.org)나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 이메일, 소속 교회 및 단체, 직분, 참석 일자 등을 기입하면 된다.

714연합기도대성회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기초해 매년 7월 열리는 한국 교회 연합기도 운동이다. 올해가 4번째 행사다. 한국 교회의 회개와 영적 각성, 한반도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문의: 02-868-842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여름 아웃리치 국내외 338개 팀, 6,847명 참가

여름 아웃리치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는 ‘나를 따르라, 열방을 향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국내외 338개 팀 6,847명이 참가한다(7월 10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는 진도, 문경 등지에서 교회 보수, 노방전도 등을 한다. 해외 아웃리치는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마을전도, 선교사 위로 등의 사역을 한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는 ‘2026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월)까지 올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제작 영상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6)하거나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onnuriacts29) 태그 또는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제출도 가능하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로 A4 용지 1장)과 가로 형태 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최근 정면 사진을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 박지혜 기자

7월 비전헌금, ‘IJM’ 후원

7월 11~12일 봉헌하는 비전헌금은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을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IJM’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가난으로 인한 폭력과 착취에 맞서는 국제 NGO이다. 17개국 29개 사무국에서 국가기관과 협력해서 정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사법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출 및 재활을 돕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IJM’의 비전은 2030년까지 5억 명을 보호하고, 수백만 명을 구하는 것이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우리는 공동체에 기대하며 참여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기대가 무너지고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대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더 악화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사림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림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올바른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깊이가 관계 속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만이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림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림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림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3-4절).

요한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끼리의 사림, 곧 수평적인 사림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림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가로축부터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세로축부터 세워진 다음에 가로축을 덧붙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림의 뿌리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평적 사림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Koinonia)’는 단순히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공유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때로 물질을 공유할 때도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에게 헌금을 요청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복음 증거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도 쓰였습니다.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함께 가지고 있는가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림은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사림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그분을 함께 공유한 자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림의 본질, 이 사림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고,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회한 친밀함은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결국 위태롭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림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참된 사림의 조건 ‘빛’

“하나님께서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고전 1:9).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사림은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을 통한 사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림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5-6절).

요한이 사림을 말하다가 ‘빛’을 말씀합니다. 참된 사림의 조건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 곧 빛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곧 빛 앞에 설 때에야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 선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라(8)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요한일서 1:3~7

그리스도를 통한 사림은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먼저 위를 보고, 그다음 옆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빛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사림은 과연 이 빛 가운데 여전히 견딜 수 있는 사림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림은 빛 가운데서의 사림인가, 아니면 어둠을 함께 나누는 사림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직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설 때 연약함, 허물,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림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림은 빛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서는 서로 사림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7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빛 앞에서 드러난 죄를 깨끗하게 해 주는 사림입니다. 빛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서로 부끄러워 등을 돌릴 거라는 생각은 오해요, 착각입니다. 도리어 빛 가운데 행하면 진정한 사림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림, 공동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빛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빛 가운데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만,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서로 용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공동체에서 때로 상처를 받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참여할 때 마음속에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

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상이 깨지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환상이 깨질 때 우리 눈앞의 진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점투성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깨끗해서 사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에 들 만큼 괜찮은 사람이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이들이 서로 사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림으로 출발해서 빛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만일 공동체에서 외롭다면 그 외로움의 뿌리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사람에게서 채워지기를 바라며 옆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자리를 요구하면 모두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림으로부터 출발해서 빛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림의 뿌리가 분명할 때 수평적 사림이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순예배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약속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순예배가 살아나는 길은 재밌는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서는 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사림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세상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 올라갈 때 닿습니다. 서로가 그 빛을 향해 걷다 보면 어느새 같은 빛 아래서 나란히 걷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에게 다가간 사림은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위를 보고, 그다음 옆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구약 성경의 집단 학살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상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다면, 어떻게 구약에서 집단 학살을 명령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신명기〉7장 같은 구약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며,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다음에 이 질문이 제기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명령은 인종이 아니라 행동에 근거한 것이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문명사회라면 범죄로 여길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문화에서는 유아 인신 제사, 종교의식으로 행해지는 성행위, 수간, 근친상간 같은 끔찍한 행위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흔한 일이었다. 이런 행동은 수 세기 동안 계속됐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깊이 통합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이 잔혹한 불의를 주목하셨고, 피해자들을 돌보셨다. 동시에 그 심판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수 세기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하나

님은 심판보다 자비를 원하시며, 회개하는 이에게는 언제나 심판을 거두실 뜻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는 평판이 있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려 했던 것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인간 문화 안에서 일하시며 구속을 향해 그들을 이끄신다.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 곧 ‘전쟁의 언어’로 심판을 내리셨다. 전쟁은 고대 근동에서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고, 모든 민족이 생존을 위해 전쟁에 의존하거나 다른 민족에게 종속되던 시대였다. 가나안보다 훨씬 작고 약했던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을 암시한다.

또한 하나님은 당시의 규범과 달리 전쟁의 규칙과 한계를 두셨다. 이스라엘은 특정한 상황과 목적을 위해서만 전쟁하도록 제한받았고, 최근 집이나 포도원을 산 사람, 약혼한 사람, 마음이 두려운 사람도 전쟁에서 제외되었

다. 하나님은 잘못된 현실을 잠시 허용하실 때도 결국 사람들을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고자 하신다.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폭력과 악을 멈추게 하신 것 이상으로, 온 우주를 구속하고 회복하려는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오실 땅을 이스라엘에 마련하고 계셨다.

셋째, 구약이 많은 가나안 생존자를 언급한다는 사실은 “전부 죽이라”는 표현이 ‘고대 근동식 과장법’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대 문헌을 읽을 때는 그 문헌의 맥락과 그 시대에 흔했던 언어적 장치를 이해해야 한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전쟁에 관한 관용적 과장 표현이 흔했다. “완전히 멸했다”,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 같은 표현은 전쟁 문서에서 흔히 쓰였다. 한 모압 왕은 승리를 두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다”고 기록했지만, 당대와 오늘날 독자 모두 이것이 과장법임을 이해한다. 게다가 “전부 죽이라”는 명령 바로 뒤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지시가 이어진다. 완전한 절멸을 뜻했다면, 뒤이어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을 가리키는 성경의 언어는 바벨론 포로기 유다의 멸망을 가리키는 언어와 동일한데, 유다의 멸망은

분명 완전한 절멸이나 집단 학살을 뜻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은 심지어 회개한 가나안 여인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기도 했다. 이 모든 사실은 “전부 죽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과장법이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본문은 읽기 어렵다.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정직해야 하며, 진부한 답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첫걸음은 성경 이야기와 고대 근동 문화의 맥락을 함께 살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구약의 집단 학살에 반대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명령은 인종이 아니라 행동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구약이 많은 가나안 생존자를 언급한다는 사실은 ‘전부 죽이라’는 표현이 고대 근동식 과장법이었음을 보여준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권리와 감사

TSL이 던지는 관계 회복의 질문 (TSL: Thank you, Sorry, Love)



정상원 성도
(온누리세계관학교, 강남C공동체)

가까운 후배로부터 TSL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TSL은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가 개발한 가족치료 프로그램이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실천하는 단순한 구조지만, 효과가 매우 크다. 감사가 채워질 때 비로소 사과할 수 있고, 사과를 통해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상담기법이라기보다 성경적 세계관이 삶으로 드러나는 실천 원리라고 생각했다. 신앙 안에서 익숙하게 말해 온 감사와 사랑, 용서와 화해도 인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세계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시절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사회복지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구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문적인 활동임을 배우며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불편하고 쉽게 이해되

지 않는 장면들도 있었다. 가난한 지역의 할머니들이 작은 도움을 받으시고는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사님은 “고맙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연한 권리예요”라고 답하곤 했다. 물론 그 말에는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감사를 삶의 기본 태도로 배워 온 나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사한 마음마저 제지되는 듯한 그 장면이 오래도록 낯설고, 불편하게 남아 있었다. 권리를 아는 사회가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지л 때 관계와 공동체는 악화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여러 제도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질서를 더 일찍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통해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게 하셨고, 도피성 같은 장치로 위기에 처한 이들이 피할 안식처를 마련해 주셨다. 그런 점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공동체적 책임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동체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역시 갖추어야

할 핵심 태도라고 생각한다. 권리를 아는 것과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본래 적대적인 것이 아닐 텐데, 오늘의 사회가 자꾸만 이 둘을 갈라놓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최근 교육계에서 계속 제기되는 교권 문제는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보는 모든 휴먼서비스 직종에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상담사, 돌봄종사자, 의료인 등 타인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 감정 소모가 극심해지고, 기피 직업으로 인식되어 간다. 그 결과 누군가는 현장을 떠나고, 누군가는 그 길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으려 하며, 또 누군가는 마음을 닫은 채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더 마음이 무거운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자 했던 크리스천들조차 반복되는 갈등, 감사보다 요구가 먼저 오는 분위기에서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부당한 구조를 지적하고, 필요한 권리를 요청하는 일은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슬로브한의 딸들은 정당한 몫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례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제 제기는 태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모든 관계가 ‘내가 받아야 할 것’과 ‘상대가 해 주

야 할 것’의 구조로만 남을 때, 감사와 겸손, 미안함과 사랑의 언어는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나는 TSL이 말하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구조가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처럼 느껴진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질서이며, 관계의 방식이다.

최근 온누리세계관학교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필수 교육으로 전환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조에 대항하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감사와 사랑, 사과와 겸손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오늘의 사회는 분명 권리를 더 정교하게 말할 줄 알지만, 그만큼 더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회인지는 묻게 된다. 정의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권리를 말하면서도 감사와 겸손을 포기하지 않으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관계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균형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메마르고 날카로워지는 내 마음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우물물을 길어 올리려 한다. 그것이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연합’의 씨앗, ‘동역의 나무’로 자란다!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 청년 450여 명 참가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이하 The Way)’ 그 두 번째 막이 올랐다. 지난 7월 3일(금)과 4일(토) 일본 인자이시 문화홀과 TCU(도쿄기독교대학)에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 청년 45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The Way에서는 <잠언> 3장 6절 말씀을 주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사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메시지가 선포됐다. 지난해 The Way가 ‘연합’의 씨앗을 심었다면, 올해는 그 씨앗이 복음 안에서 더 깊고 단단한 ‘동역의 나무’로 자라는 시간이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첫째 날, ‘The Way’ 집회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지진으로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인데도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



다. 국경을 넘어 일본을 찾은 한국 청년들과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일본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실 ‘길’을 간구했다.

The Way 집회는 토미야스 스미토(CCM 싱어송라이터)와 일본밴드의 찬양으로 시작됐다(통역 박현식 목사).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감추인 보물’(마 13:44~46)을 주제로 전했다(통역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이 메시지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천국을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집회 하이라이트는 ‘헌신자 초청’이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결

단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청년들에게 참석자들이 다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다.

둘째 날, ‘YUME 콘퍼런스’

최강호 전도사와 한국 대학청년부 찬양팀이 ‘YUME 콘퍼런스’의 문을 열었다(통역 나가노 마사토 전도사).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TCU 가위바위보 게임’, ‘얼마나 있나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가 됐다.

이날 오후에는 야마구치 요이치 목사(TCU 특별교수)가 ‘한일 기독교 역사의 과거와 미



래’를 주제로 강의했다(통역 최종석). 야마구치 요이치 목사 ‘전쟁 후 80년 회개, 화해, 노력’, 키쿠치 미노루 목사(TCU 교수) ‘성경 고고학의 세계’, 신경훈 목사(갈렘청년부 담당) ‘청년, 오늘을 살다!’, 오카자와 하지메(ESC Japan) ‘얼티밋 프리스비’, 야마가타 노부히로 목사(KGK(크리스천학생회) 동경 부지사) ‘신앙과 진로선택’, 시무라 토모키(hi-ba) ‘친구에게 복음’을 주제로 선택 강의를 이어졌다.

예배에서는 히사지마 마사토 목사(아시아호프교회)가 ‘사랑받는 자녀답게’(엡 5:1~2)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통역 김정규 집사). 히사지마 목사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요코하마 온누리교회 담당)와 김창호 목사(러브소나타 본부장)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양국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일본 청년들이 한국을 위해 ‘주여’를 외치며 함께 통성기도 했다.

러브소나타 본부장 인터뷰



김창호 목사
(러브소나타 본부장)

Q ‘The Way’가 그려나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도쿄 토요타 아레나에서 ‘가스펠 나이트 The Way’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늘 ‘츠나가루(つながる, 연결되다), 후카마루(ふかまる, 깊어지다), 히로가루(ひろがる, 넓어지다)’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그 연합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복음의 세대가 전 세계 청년들에게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The Way’가 그려나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Q 한일 청년들의 연합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두 나라 청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열방의 청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숏-인터뷰(Short-Interview)



김원주 형제
(여호수아청년부)

Q 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참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깊이 깨닫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번 사역 역시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두려움 없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Q ‘The Way’ 집회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합니까?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언어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복음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에서 복음의 동역자로 연합하고, 세계 복음화를 함께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카네코 리사키 자매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미도리노 채플)

Q 이번 ‘The Way’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국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본에 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국경을 넘어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Q 한국 교회와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제목이 있습니까?

“일본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일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

7월 19일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세미나’

사회선교본부 소속 제이홈과 온누리울타리가 7월 19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을 주제로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입양, 가정위탁, 아동 결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등 고아 돌봄 사역을 소개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구하는 자리다.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세미나에 앞서 오창화 집사(온누리울타리 팀장)가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본 고아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글을 보내왔다. 입양과 가정위탁, 아동 결연 등 고아 돌봄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음을 설명한다. / 편집자 주



오창화 집사
(온누리울타리 팀장)

우리의 예배는 흠 없이 준비되고, 기도하는 뜨거우며, 말씀과 나눔은 늘 풍성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풍성한 신앙생활의 은혜를 누리는 이 순간에도, 세상의 가장 차가운 곳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주일마다 입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정작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찾고 계신 수많은 ‘고아’의 존재 앞에서는 눈길을 주지 못하고 피한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복음의 가장 뼈아픈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사명 선포와 고아를 향한 시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눅 4:18).

이 선포는 결코 추상적인 영적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홀로 버려져 두려움에 포로 된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무너진 자존감으로 자기 자신을 폄하하며 자학하는 고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선포하며 자유케 하는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쉰다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온 마음이 가장 연약한 이웃 ‘고아’를 향해 있음을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고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 속 한 장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격노하셨던 몇 안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을 때다. 예수님

이 몹시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 10:14).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고아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무관심으로, ‘머리 검은 짐승은 집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를 믿으며,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대판 제자들’은 아닌가? 예수님은 아이들을 당신의 품에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 그분의 시선은 늘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었다.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내미는 손 하나하나가, 곧 예수님이 품에 안으셨던 그 온기를 이어가는 일이다.

입양된 우리가, 입양해야 할 아이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고아’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도의 가정이 고아들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은 특별한 소명이나 부르심이 아니다. ‘따뜻히 감싸함으로 순종해야 할 일’이다. 이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보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이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2,289명의 아동이 새롭게 보호가 필요한 처지에 놓였다. 이 아이들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 사회에 나서야 한다. 최근 5년 동안(2020~2024)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만 8,586명, 매년 1천 명에서 2천 명에 이른다. 부모의 품에서 독립을 준비할 시간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에 던져지는 이 청년들에게 주거와 생계, 진학과 취업의 모든 짐이 한꺼번에 지워진다. 정부가 자립 수당과 자립준비금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경제적 지원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 꿰매는 일, 복음의 능력 삶으로 증명하는 예배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은 흠 없는 예배와 풍성한 교제의 자리가 아닌, 보육원 한구석에서 웅크린 채 잠든 작은 아이의 영혼에 머물러 있다. “누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까, 누가 내 딸의 엄마가 되어줄까?”라며 탄식하고 계신다. 부모를 잃고 홀로 숨죽여 우는 아이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소리 없이 울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릴 때다. 자식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뤄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의 빈방을, 따뜻한 품을 내어주시기를 바란다.

고아 돌봄 사역은 단지 불쌍한 아이 하나를 돕는 구제 활동이 아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을 꿰매어 드리는 일이며,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는 가장 경건하고도 절박한 예배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온누리교회 성도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고아를 돌보는 방법에는 입양, 가정위탁, 보육원 아동 가정 결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이 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소속 제이홈(입양, 위탁 가정 공동체)에서는 입양과 가정위탁을 홍보하고 있다. 온누리울타리(보육원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역팀)에서는 보육원 아동과 가정 결연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멘토링으로 섬기고 있다.

고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하고 싶은 성도들은 7월 19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선교관 지하1층)에서 열리는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세미나’에 발걸음해 주시면 좋겠다. 이 사역에 마음을 보내고 싶은 성도들은 사회선교본부를 통해 후원해 주셔도 좋다. 보내주시는 정성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자녀들인 고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일 것이다.

문의: 02-3215-3434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20-36505
(온누리교회 온누리울타리)

로스쿨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법조인 등 110명 참석

로스쿨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 ‘2026 Hidden Paradise’가 지난 7월 4일(토) 오전 11시 반포한강공원 채빛섬 애니버서리홀에서 ‘진리로 가는 항해’ (요 14:6)를 주제로 열렸다. 로스쿨기독교인연합회 주최, 온누리교회 맞춤형도움 및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이 후원했다. 전국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법조인, 초청자 등 1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도대상자 40여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결신했다.

‘2026 Hidden Paradise’는 홍인석 변호사 공연, 윤동환 교수(해커스법 아카데미) 응원, 식사, 크루스 특선, 선배 법조인들과의 대화(토크쇼), 박진아 작가 샌드아트,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임) 메시지, 결신 꽃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길牧사는 ‘시글락의 다윗’(삼상 30:3-8)을 주제로 말씀을 전



‘2026 Hidden Paradise’.

했다. 박 목사는 “같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현실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서 “원망 대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기적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로스쿨 재학생 김석주 씨는 “평소

존경하던 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번 힐링 콘서트를 계기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

7월 19일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 세미나’

제이홈과 온누리울타리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7월 19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신관 지하 1층)에서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을 주제로 열린다.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 베이비박스 설립, 한국입양홍보회 이사)가 강의한다.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에는 이름, 공동체, 관심 사역 등을 적어야 한다.

제이홈은 입양·위탁 가정 공동체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5시 정기 모임을 한다. 온누리울타리는 보육원 아동 결연(열린울타리)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푸른울타리) 사역팀이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오전 열린울타리, 오후 푸른울타리) 정기 모임을 한다.



구립꿈누리어린이집 원아 및 교직원 모집

원아 7월 15~30일 대기 신청, 교직원 31일까지 접수

‘구립꿈누리어린이집’이 9월 개원을 앞두고 원아 및 교직원을 모집한다. 구립꿈누리어린이집은 온누리청소년센터 1층에 마련된다.

원아 모집 대상은 0세(2025년생), 1세(2024년생), 2세(2023년생) 영아다. 입소 대기 신청은 7월 15일(수)부터 30일(목)까지 전화(02-6953-5845)로 하면 된다.

교직원은 보육교사(담임) 6명, 조리사 1명을 선발한다. 보육교사는 2

·4년제 유아교육과 및 보육 관련 학과 졸업자, 조리사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다. 접수는 7월 31일(금)까지 이메일(kseung05@naver.com)로 하면 된다. 메일 제목에 ‘지원분야-성명’ (예: 보육교사-홍길동)을 기재하면 된다.

문의: 02-6953-5845

한동대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2026 한동대학교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6일(일)부터 8월 15일(토)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2026 한동대학교 영어캠프는 2주(7월 26일~8월 8일)와 3주(7월 26일~8월 15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

가비는 2주 330만 원, 3주 400만 원이다. 7월 17일(금)까지 등록하면 참가비를 2주 과정 15만 원, 3주 과정 50만 원 할인해 준다. 참가신청은 한동대학교영어캠프 홈페이지(camp.handongedu)에서 하면 된다.

문의: 054-260-3047,

jchyun0621@handongedu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 여름 예배

7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한동홀

‘온누리 법조인 모임(Onnuri Lawyers Forum, OLF)’ 여름 예배를 7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드린다. 지난 4월 21일 봄예배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도덕법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OLF는 기독교 법조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명을 공유하는 신앙공동체다. 정기예배, 포럼, 법조인 맞춤형 기도회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에는 ‘대한민국의 법,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6월 13일에는 제1회 OLF 독서포럼 ‘월버포스의 노예무역 폐지운동과 설득의 리더십’을 개최했다.

OLF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 공무원, 법학 교수 등 직역(職域)에 관계 없이 법조인이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3281-073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故 하용조 목사 영상 아카이빙 프로젝트

7월 26일까지, QR코드 또는 수거함에 제출

CGN 풍당에서 故 하용조 목사의 디지털 자료를 찾는다. 하용조 목사의 말씀 강해, 설교 영상, 음성 파일 등을 소장하고 있는 성도들은 7월 26일(일)까지 QR 코드로 신청하거나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와 양재온누리교회 지하 1층 원형카페에 설치된 수거함에 USB, DVD 등 실

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는 故 하용조 목사의 설교와 말씀을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한 ‘영상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CGN 풍당이 준비 중인 ‘하용조 목사 특별관’ 제작의 일환이다. 문의: 02-792-0691



CGN 풍당, 세미나 개최

대전 34개 교회 목회자 50여 명 참석

CGN 풍당이 지난 7월 2일(목) 대전 도안교회에서 대전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풍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열린 ‘CGN 풍당 미디어 포럼 in 대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대전 지역 34개 교회 목회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GN 안기성 풍당네트워크 팀장 ‘우리 교회 풍당 200% 활용하기’, 박군오 목사(구노리더십연구소) ‘AI, 목회에 들어오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박윤환 부목사(RM교회)는 “풍당의 어린이 콘텐츠를 활용해 아이들이 유튜브 대신 풍당을 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돕고 싶다”고 소망했다.

장관 목사(원신흥교회 담임)는 “그동안 양육과정이 없었는데,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단계별 양육과정을 개설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7월 4일(토) 대전 한사랑교회에서는 하루 만에 교회 미디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CGN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NGO 더멋진세상, ‘제5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 참석

NGO 더멋진세상 대표 및 KCOC 회장 김광동 장로가 지난 6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EU,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김광동 장로는 우크라이나 비니차

주와 자카르파타주 정부와 재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요 관계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장, 친환경 주택, 바이오에너지, 식수시설 등을 포함하며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홍하영 기자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입양가족 이야기



/ 이단열 집사(한강공동체, 제이홈 총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나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나를 낳아 가족이 되었고, 나 역시 결혼해서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다. 사랑으로 만나고 출산으로 자녀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가족의 모습이다.

복음 안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가족이 되게 하신 방법은 ‘입양’이었다. 우리는 절차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과 관계에 더욱 주목하며, 그것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기쁘게 받아 들인다. 그런데 왜 현실의 입양 앞에서는 쉽게 망설이게 될까? 익숙한 전통적 가족의 모습과 달라서 낯설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사실 나 역시 그랬다. 성경에서 ‘양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가 아니라 양자로 삼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결혼 전 아내는 자녀를 한 명은 출산으로, 한 명은 입양으로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현실감 없는 이야기로 여기고 “알겠어요”라고만 대답하고 넘어갔다. 시간이 흘러 출산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내는 다시 입양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 손에 이끌려 입양 공동체 제이홈의 문을 두드렸다.

첫 방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근처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제이홈 가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모임이 끝난 뒤에야 그 아이들이 제이홈의 아이들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 아이들은 내가 알던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입양을 준비하는 나조차 은연중에 그들을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이홈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어느새 입양으로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입양 사실을 안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셨네요”라고 말한다. 그때마다 나는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대답한다. 언젠가는 입양 이야기가 놀라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서 “좋은 일 하시네요” 대신 “행복하시겠어요”라는 인사 가 오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실천은 입양·위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특별하거나 낯선 존재가 아닌 가족으로 바라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입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리라 믿는다. 입양이 더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기를 소망한다.

■ 와이무슬림 16기 수료 간증



/ 전혜민 성도(강남A공동체)

최근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무슬림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슬림 학생들의 경직된 표정과 낯선 분위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리감과 경계심을 느꼈다. 이번 학기에도 파키스탄에서 온 대학생 쿠람 씨를 만났는데, 그의 첫인상 역시 다른 무슬림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와이무슬림 강의를 듣기 시작한 첫 주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편견을 거두셨다. 무슬림들이 율법과 종교적 의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만, 참된 확신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동시에 육신의 오해를 묵상하면서 나 역시 믿음보다 행위와 선한 동기를 의지하려 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8주 동안의 강의를 내게 남긴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었다. 이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신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자리에 둔다. 그 차이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내가 당연히 여겼던 복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새롭게 깨달았다.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학기 중에 쿠람 씨가 성지순례인 ‘하지’를 위해 결석한다고 연락해 왔다. 이전 같았으면 출결에 관한 주의를 먼저 주었겠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일정이니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 작은 변화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학기 마지막 강의에서는 쿠람 씨에게 내 이름을 아랍어로 써달라고 부탁했다. 발음을 확인하며 정성껏 적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생을 위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함께 그날까지 쿠람 씨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 안의 편견을 긍휼로 바꾸시고,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게 하셨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셨다. 와이무슬림은 단순히 이슬람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통일선교팀 북중접경 아웃리치 후기



/ 석보라 성도(서초B공동체)

지난 5월 22일(금)부터 25일(월)까지 3박4일 동안 통일선교팀 주관으로 북중접경(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지대)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두만강 일대와 백두산을 돌아보는 여정이었다. 9명의 아웃리치팀원과 함께 떠난 여정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강풍으로 백두산 천지는 끝내 보지 못했지만, 해란강이 굽이쳐 흐르는 용정의 평화로운 풍경부터 68m 절벽에서 쏟아지는 장백폭포의 웅장함까지 광활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때마다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분단의 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접경 지역의 삼엄한 현실은 이내 묵직한 떨림으로 다가왔다. 이동하던 버스에 공안과 경찰이 올라와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인 나조차 숨이 막히고 무서웠다. 이 서슬 퍼런 감시와 긴장감을 일상으로 겪으며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현장을 지키는 사역자들을 향한 존경심과 애뜻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나님의 눈물

두만강의 도문대교와 그 너머 북한 남양시의 풍경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닌 그 땅에 사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셨다. 세상은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그 땅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눈물은 여전히 그 곳에서 살아 숨 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적잖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거나 냉소하지만, 현장에서 마음 깊이 다가온 것은 그 어떤 장벽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북한 선교는 어쩌면 정치의 이념으로 나뉘는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의 색깔, 바로 투명한 눈물 색 아닐까?

이번 아웃리치는 나에게 거창한 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외면하고 싶었던 그 땅을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 깊이 심어주었다. 이제는 그 땅을 향한 냉랭한 시선을 거두고, 소리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 한다. 한 번의 기도가, 한 사람의 헌신이 그 닫힌 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세상 속 크리스천의 삶



/ 황진기 집사(강남E공동체)

당당히 크리스천임을
선포할 때마다

1998년, 대학 졸업 이후 부푼 꿈을 안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입사하자마자 크리스천으로서 큰 시험대인 ‘술 문화’와 직면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술자리마다 어울리지 못하고 곁돌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위축된 채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러자 술 대신 술자리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되라는 마음을 주셨다. 건배사를 3행시, 4행시로 재미있게 만들어 부서 회식을 진행했다. 매년 12월 송년회에는 그해 부서원들에게 있었던 경조사를 모아 ‘10대 사건’을 발표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더 적극적으로 부서원들과 어울리며 행사를 도맡았다.

그 이후 나를 향한 부서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술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조심스럽게, 동시에 더 당당하게 살았다. 크리스천임을 선포한 만큼 일도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애썼다. 사내 자유게시판에 복음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낸 회사 생활이었다.

또 하나의 간증은 1992년 입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입대 이후 첫 회식에서 병장이 나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다. 나는 감히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병장은 “내일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날 밤 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께 구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를 향한 병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나를 크리스천으로 인정하며, 앞으로 내무반 모든 회식 때 나에게 음료수만 건네라고 명령했다. 주일에는 절대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격려까지 했다. 군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회사에서도, 군대에서도 내가 당당히 크리스천임을 선포할 때마다 역사하셨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우리가 속한 어디서든 위축되지 말고,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함을 배웠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뎀로 31길 70
 햇불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원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평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은우누리빌딩
 2-6층
 남양주
 변대성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항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대로55로 75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용인
 양태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륙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김태웅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권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환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현로 8

■ 기도처

- ▶ 태안온누리
최형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을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 봉화온누리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

■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앨버틴**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박재현 목사 1-619-847-4147
86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 **시카고**
 -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글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oa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키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요
요시하리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TY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캐мп스	담당목사		
바울로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복동	변대성	신동식	김승경
노혜미	양재경	도옥환	김태용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한수	강지영	권용갑	김영갑
김연수	김혜영	김도윤	김승경
김래유	김미경	김상규	김승경
김선재	김성호	김성웅	김용민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재석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종아
김종호	김정호	김홍민	김태광
김재원	김창호	김철희	김현실
김홍주	김한국	김 현	문영재
김기훈	나기형	람문준	박성민
김기남	박진영	박성훈	박치중
박철용	박정우	박형준	배순안
배해삼	배성우	서수민	송영동
신재식	신기성	신경환	신준호
신승태	신우주	손정현	송동주
장재호	안대진	안사부엘	양성민
이성민	이성민	오 민	오현교
유진아	유원호	윤길준	원대아
유시안	유원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노	이창욱	이서진
이세영	이성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우	이찬우
이현규	이호준	이호준	이한희
임동현	임용석	장동원	장진범
장재원	장재호	장지훈	정병현
전신아	전진호	전재표	전동현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영호	정외호	정지우	조동욱
조병철	조보하	조광문	조현수
전신미	주하늘	최대명	최성규
최희종	최용우	최재용	최종현
하성희	주대미	카와타리	요시카
하원희	하정훈	한충희	해물리
황원일	황문리	황유일	
◆전도사(현임)			
유석준	유원우	이예찬	장건우
유지훈	홍근영		

▶장호연	▶국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나	▶국내파견 목사		
▶고병석	▶협동목사		
▶김기일	▶류도세	▶방선기	▶안환교
▶이기복	▶한정국		
▶북소리(파트)			
▶가 나	▶김홍기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홍미	▶김경철	▶네트라
▶문봉주	▶박대웅	▶박성준	▶박씨마
▶박씨유	▶박지현	▶박인선	▶비 컵
▶서영철	▶신대환	▶양현수	▶유패미
▶이광대	▶마름스름	▶이강철	▶이민영
▶예상은	▶이승헌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임성진	▶임진숙	▶정진모
▶제연랑	▶최진재	▶최재정	▶허효경
▶환영선			
▶전도사(파트)			
▶강도현	▶강병주	▶고우리	▶고현근
▶강구모	▶국지환	▶권영찬	▶권예담
▶권동화	▶권형석	▶김가희	▶김기태
▶권동환	▶김민수	▶김민수	▶김민희
▶김범석	▶김빛나	▶김소망	▶김승희
▶김신영	▶김예찬	▶김유미	▶김영옥
▶김연은	▶김재현	▶김재현	▶김재현
▶김지석	▶김현정	▶김현정	▶김하성
▶김지은	▶김진정	▶김태현	▶김효목
▶김효진	▶나그나	▶마시도	▶나영필
▶나 해	▶다미리	▶박 권	▶박성훈
▶문수진	▶미지율	▶박 바	▶박의력
▶박성민	▶박재민	▶방이연	▶방지아
▶박성진	▶배유진	▶배현미	▶서나영
▶서은규	▶서은지	▶서해진	▶손현우
▶서영호	▶송진지	▶송 현	▶송현우
▶신대환	▶신지수	▶신호철	▶신호철
▶신영복	▶염영덕	▶오성관	▶오성만
▶오영광	▶오예원	▶오진우	▶오진우
▶옥준우	▶우국화	▶우주진	▶우승희
▶윤희자	▶유진우	▶유지은	▶유 찬
▶유호원	▶이건준	▶이나단	▶이민진
▶이민규	▶이상은	▶이승희	▶이선재
▶이소라	▶이성연	▶이승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준영
▶이희영	▶이택민	▶임병미	▶임도환
▶임지연	▶장성영	▶장영주	▶장기운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승현
▶전정웅	▶정영우	▶정우나	▶정우나
▶전진찬	▶제영민	▶조미희	▶조슬기

여잔	주승환	주영진	차선일
최성진	최혜림	최희정	최혜정
주서영	하예민	하현영	한숙희
허영은	홍혜나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영국	강진익	강현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찬	권영진	권오승
권영성	권용환	권철준	김경철
김관근	김갑식	김광동	김광남
김기호	김갑식	김갑식	김두진
김명세	김병종	김명철	김병훈
김병호	김상성	김석신	김상인
김성택	김성목	김성인	김선인
김영수	김영수	김용기	김용성
김기우	김영배	원기원	김원규
김원규	김영중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종렬	김재우	김재일
김종진	김종성	김준호	김주홍
김준근	김준성	김준호	김지영
김장호	김철갑	김현식	김태경
김희준	김형철	김형식	김태중
김희수	나성권	나영욱	남상길
기기홍	노재환	류기봉	류지영
문성기	문장한	문은호	문종실
문현구	박공	박두원	박병률
박성인	박광배	박석봉	박석봉
박성진	박성호	박수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대	박태현	박태현
박영국	박영대	박종현	박종현
박태성	박태민	박태민	박태민
배문	배병대	배인민	배기영
배홍	배성현	서성현	배승운
서진봉	서찬교	서정무	서정현
송영대	송한기	송기선	성창섭
송재대	송유인	송기선	송영범
송종환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화철	신한보	심상달	심재욱
심장근	심준호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현	양우식
양석수	양승준	임민환	오성연
오성훈	유은주	유원우	유병진
유병훈	유영열	유재현	유현우
유영기	유성열	유영진	유석우
유영자	유정환	이건재	이경찬
이훈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식	이동희	이두승
이민식	이무용	이백용	이백도
이부인	이상기	이성덕	이성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재두	이재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두	이지호	이정호

이종철	이종수	이창남	이철
이태환	이태환	이현규	이현조
이혜영	임광수	임광수	임광수
임한태	장광준	장광준	장선철
정영하	정형준	정다영	정다영
전한배	전경부	전다영	전정하
정문구	정문규	정보원	정성기
정성풍	정영구	정영원	정용하
정운오	정재태	정재현	정진호
정희태	조기상	조기상	조대호
조성근	조희찬	조성배	조지호
조창구	정수업	정진하	정교종
최정원	최상진	최희도	주수일
주영일	차호진	차치근	차치환
전원무	최도선	최두명	최명
최종상	최진성	최창규	최장수
최희환	최희영	최파무	한광수
한정주	한준희	한배진	한양희
한홍근	한창석	한형식	함광수
함신호	함일석	함정철	허광수
허복남	허병식	호종일	홍기영
홍대표	홍성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호	황종철	황의서

▲시무장소

강기훈	강은철	강부수	강상훈
강석훈	강은철	강종대	강찬호
강영재	강종대	강도범	고영대
고영재	곽백철	곽진성	곽대일
곽희준	권오영	구지영	국대중
권근호	권영호	권재현	금세종
김근도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원	김도영
김동철	김동수	김동원	김동원
김동준	김동환	김민수	김명현
김문기	김민수	김범수	김선호
김상진	김상철	김성기	김상규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생	김성욱	김진원	김영남
김영생	김영순	김영옥	김영옥
김영하	김영하	김영배	김영배
김용호	김우호	김영태	김이준
김인수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환	김종호	김지하
김지현	김재환	김창식	김창원
김철민	김태현	김현주	김현주
김형식	김형준	나광호	나영
남명환	남영준	남윤찬	남정진
남우인	노경환	노진기	노지훈
나수서	노성환	명영한	문상찬
노명익	문정식	문기원	박건용
박기영	박동명	박민기	박도하
박두현	박동현	박광수	박광식

박성규	박승범	박영용
박영환	박재식	박용익
박지민	박대식	박중현
박지수	박대성	박대식
박대준	박대환	박대규
박효신	박재환	박정중
박배준	박성호	박승호
서명수	서병호	서달석
송기태	손대용	송경제
송호철	송동성	송영봉
신호철	신동기	신무우
신민호	신시선	신영우
신현승	신현일	심길섭
신진보	신희돈	양승철
인연하	양상식	양성철
안준홍	양승식	양현열
오범규	오성록	오재환
오익식	오복근	오영우
원준호	유복근	유재훈
윤상진	윤성일	윤수진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동욱	이보경	이상형
이준산	이상섭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성준	이영근	이영복
이우경	이원찬	이은일
이지형	이재광	이재우
이정구	이종삼	이종철
이주호	이진태	이찬주
이태열	이학일	이해남
임재우	임인	임영철
임재남	임요환	임정환
장정식	장관주	장영일
장성진	장승준	장문석
전영수	전승준	장우진
전영수	전진국	장정열
정영기	정민호	정성식
정영기	정영태	정영환
정용욱	정용주	정운섭
정성희	정재환	정원만
정진하	정지영	정재태
조대식	조범영	조대성
조성대	조영창	조상훈
조수대	조우창	조상량
진종수	자운근	최민정
최보경	최석민	최성만
최이정	최성필	최주환
최희재	최홍수	최호진
최상진	최후원	최현수
한복규	한상규	한성현
한영우	한영석	한경
하대환	하영남	하필우
홍갑진	홍성수	홍태훈
홍승수	홍호식	홍병원
홍성우	황준서	황상윤
황영일		

▶명예장로

▶ 김종수 이승규 정몽준 홍문준	▶ 박동순 이용만 전영남 홍승식	▶ 박용원 이원로 정광택 지성한	▶ 박찬구 이혁삼 정남식 채수삼
◆ 합동장로 강남모 박형규 주치수 주교평	▶ 김갑순 양호승 최대환 최인재	▶ 김정훈 배대현 우상근 최원호 황재이	▶ 진 준 박자인 이경호 최종훈
◆ 성가사 강내우 김병오 김병오 김혜경 문보람 신순환 이영근 이세미 최지은 최재영	▶ 강순영 김기덕 김진아 김정겸 박혜경 송상진 오승현 유은애 이병철 이수연 정미파 최영은 최재영	▶ 강중현 김세일 김정환 김희정 박용규 송정진 오지훈 이수정 임진순 정필모 최유석 최훈희	▶ 강한결 김병우 김우석 김지형 남윤창 박성규 신수정 원이주 미이선 이성민 조익현 채재민 최지선 홍우선
▶ 해의 온누리교회			
◆ 담당목사 권영환 박진호 대부 니시아마 후루자와	▶ 김도근 서재환 전민 신지영 마키토	▶ 문봉주 이길택 정호준 하카마타	▶ 문영재 조하루 조준목 미키
◆ 주MOMA담당목사 김철진 심상현 이성준	▶ 김형철 이성권 이정관	▶ 미크르 이경진	▶ 박재영 이재정
◆ 부목사 김기홍 김성근 김영봉 김창식 노형수 박재훈 박효빈 손준옥 유병중 에마키 이승윤 이승호	▶ 김명성 김성연 김영민 김향선 문성일 박정원 손미경 안성진 유영순 이덕주	▶ 김성래 김성진 김정운 남진식 박대원 변병섭 신기원 염영기 이호경 이미령 이정주 이형근	▶ 김상훈 김인숙 김진우 노경호 박미은 박현욱 손 달 심재현 유운상 이우자 이성원 이정원 장이사

장재홍 전상진 현인선 전홍철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준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장요아 강진영 고은아 강성호
김영자 김성현 김인혜 김경옥
김강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우
박지혜 백백기 서영찬 설산재
송민선 안대현 이인희 오희재
나아열 이만희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실 이은희
지성원 임지록 윤성민 장성진
장재용 장유미 정병천 정성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정훈 최정주 조진욱 진현철
하영훈 한현희 한소은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Lee
Wang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지역장로
강희열 권덕수 권우중 김경덕
김경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배현조 남 영 노홍규 백남도
김태호 서인택 정중수 송창도
안종일 우광발 우승호 윤영오
이경표 이광철 이문호 이용하
이진기 이팔복 정길안 한덕중

◆구서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원호 고다이라
김갑집 김재동 김재우 김준제
남영근 노유철 박태복 성현제
송대민 신솔문 심상일 여윤필
유영민 이종찬 이수영 이승우
이은창 이은진 손재복 장민범
전현주 조구배 조성민 조우형
최정주 한성훈 허희표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합동장로
김동현 권재현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우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찬 최승호 최태영

소천

7/4(토) 영동포구로 박성애 성도 모친상 고 정봉남
7/4(토) 성곡 김향숙 권사 모친상, 김진우 집사 빙모상
고 안기매
7/5(일) 관악금천 윤권희 성도 모친상 고 진순희
7/5(일) 관악금천 이찬주 장로 부친상, 이재화 권사
시부상 고 이은필
7/5(일) 도곡 김정선 권사 모친상, 이현립 집사 빙모상
고 사백화
7/6(월) 이춘 신영선 목사 빙모상 고 이효숙
7/7(화) 성동광진 경국원 집사 모친상, 최동미 집사
시모상 고 이종녀
7/7(화) 강남B 김범호 성도 빙모상 고 정봉애
7/8(수) 양재A 이여훈 성도 부친상 고 이효명
7/9(목) 노원 나순민 권사 모친상, 김영선 장로 빙모상
고 김공순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미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대상 어르신)
내용: 미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미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8: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380)

시립옹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가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선정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사리 배달, 돌봄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변등록번호, 치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0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역역폭쌍상삼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한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답
오답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담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통상정착훈련), 영어 상담, 예악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문단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필수)

광고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송도지점 북카페 근무자(서점 재고관리 및 식음료 제조) 1명
형태: 계약직 1명(1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주5일 근무(주말 근무 가능자)
접수: 홈페이지(<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은누리선교재단 양재은누리 커피숍 정규직원 모집
 업무: 커피숍 바리스타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경력 2년 이상
 우대: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형태: 정규직
 지원: 입사지원서(자유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nicho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은누리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 확인